

전북대 취업률 ‘정체’ 거점국립대 간판 무색

24년 62.8% 전년 동일 ‘제자리걸음’
전국 평균 밀돌며 결만 번지르르
지역 일자리 한계 수도권 풀려먼전
인재 유출 악순환...도돌이표

(3) 거점국립대인 전북대학교가 위상에 걸맞지 않은 행보로 지역사회에서 갖은 지탄과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전북대의 특임교수 남발과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취업률, 주차비 인상, 유학생 실태, 등 문제점을 10여 차례 걸쳐 중점 보도한다. <편집자 주>

전북대학교의 졸업생 취업률이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다 2024년 들어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대학정보공시와 대학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전북대의 2024년 취업률은 62.8%로, 2023년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4년제 대학 평균 취업률(63~64%)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북대의 취업률은 2021년 59.1%, 2022년 62.3%, 2023년 62.8%로 2년 연속 상승하며 회복세를 보였으나 2024년에는 증가폭이 멈췄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65.1%에서 67.2%로 상승해 격차는 여전히 3~4%포인트 수준이다. 수도권 주요 대학 평균이 69%대인 점을 고려하면 전북대는 중간권에 머물고 있다.

전북대 관계자는 “단순히 취업률 수치 향상에 집중하기보다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목

표”라며 “현장실습과 기업 연계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정보 부족과 지역 일자리 한계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전북대 인문대 졸업생 A씨는 “수도권 위주의 채용이 많아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다”며 “취업 준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전북대의 낮은 취업률을 단순히 학교 경쟁력의 문제가 아닌 지역 고용 구조의 제약으로 본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비수도권 대학은 지역 내 일자리가 한정적이고,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아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전북 지역은 대기업 본사와 대형 산업단지가 적어, 졸업생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도내 주요 대학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원광대 63%, 전주대 60%, 군산대 61.6%, 우석대 66.2% 등으로 전국 대학 평균인 66.3%에 미치지 못했다. 청년층이 첫 직장을 얻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진 가운데, 지역 대학의 취업률 정체는 청년 인구 유출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교육 전문가 김모 교수는 “전북대가 중간권의 늪을 벗어나려면 단순한 취업률 경쟁을 넘어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산학협력 강화, 지역 맞춤형 전공 개편, 청년 채용 인센티브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대는 연구성과와 재정 확보에서는 거점국립대 중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취업률과 교육투입비 등 학생 체감 지표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취업률, 전국 평균 밀돌며 정체
'거점국립대' 전북대학교의 졸업생 취업률이 지난해 들어 2023년과 동일한 수치인 62.8%를 기록하며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전북대학교>

“전북 예산 10조원 돌파하자” 10명 국회의원, 예산심사 총력전

의원별 3건 이상 신규·증액사업
5500억 이상 증액 반영 목표
의원 10인, 30개 사업 공동 발굴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 10명이 예산을 얼마나 증액반영시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전북국회의원들끼리 모여 전북도와 협의를 통해 의원 1인당 최소 3건의 신규 사업 또는 주요사업의 증액반영 등을 통해 모두 5000억 이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가 반영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전북관련 국가사업 예산이 신규 및 증액 포함 모두 9조 4585억원이다.

당초 전북도와 정치권은 총 1,541건에 10조 1,174억원 반영을 정부에 요구했었다. 하지만 정부 예산의 한계로 인해 1,228건만이 반영되면서, 전북이 중점적으로 요구했던 신규사업들이 배제

되었다. 이에 전북도와 전북국회의원들은 정책 간담회를 갖고, 각 의원당 최소 3건의 신규 및 증액 사업을 담당해 반드시 반영시키고, 또한 전북과 14개 시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70개 사업도 동시에 신규 반영 및 증액 반영 시키기로 했다.

전북도는 전북 국회의원 및 전북연고 국회의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최소 5500억 이상을 증액반영시켜, 사상 최초로 10조원 국가예산시대를 열기로 했다.

국회는 6일부터 예결특위가 정부를 대상으로 예산관련 질의에 들어갔으며, 각 상임위별로 예산 증감 심사에 들어갔으며, 내달 2일까지 정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물론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 예산심사일정을 1주일 정도 미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민주당은 법정 기한인 2일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2면에서 계속>

전북동물위생시험소 ‘소 결핵 진단’ SCI급 국제학술지 게재·특허 출원

진단법 개발 논문 Animals 게재
우태아혈청 활용 검사 정확도 향상

전북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소장 이상효)는 자체 연구사업으로 수행한 소 결핵병 진단 관련 연구 논문이 2025년 9월 1일 SCI급 국제학술지 Animals에 게재되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논문의 제목은 “Fetal Bovine Serum Supplementation Enhances Functional Consistency of IGRA Results in Bovine Tuberculosis Diagnostics”로, 소 혈액에 우태아혈청(FBS, Fetal Bovine Serum)을 보충할 경우 기존 진단 방식 대비 위음성 발생을 줄이고 검사 결과의 민감도와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내용이다.

소 결핵병은 사람과 동물이 서로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차단방역이 중요하다. 이번 연구는 실제 진단 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이 높아 축산 방역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현장적 의미가 크다.

연구를 수행한 정재교 수의연구사는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과 실험 분석을 기반으로 형성된 연구 성과”라며, “앞으로도 검사 정확도 개선과 진단 기술 고도화 연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위생시험소는 해당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9월 2일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으며, 직무발명으로 등록되어 특허권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유로 귀속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성과는 소 결핵병 진단 정밀도를 높여 도내 축산 방역 체계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는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해 지역 축산업 경쟁력과 국가 방역체계 고도화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관광브랜드 슬로건 ‘HEY! 전북여행’ 최우수 선정

총 3,105건 응모작 접수 경쟁
도, 최우수 1작·우수상 4작 선정
발굴작 향후 BI 개발 적극 반영

전북도는 전북 관광브랜드 슬로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1건과 우수상 4건 등 총 5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북 관광의 매력과 가치를 담아낼 참신한 슬로건 발굴을 위해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14일 간 진행된 가운데 총 3,105건

의 응모작이 접수돼 높은 관심을 모았다.

1차 심사는 ‘전북 관광의 매력 전달력, 타 지역과의 차별성, 표현의 창의성과 간결성’을 기준으로 진행됐고, 응모작은 ▲지역특성과 자긍심 ▲한국·한류 ▲역사와 전통 ▲음식·맛·멋 ▲자연 ▲여행지로서의 우수함 ▲힐링 등 7개 주제로 분류되어 총 140건으로 압축됐다.

이어 홍보·디자인·관광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북 관광브랜드 자문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5건이 수상작으로 결

정됐다.

최 우수상에는 ‘HEY! 전북여행(History-Experience-Yummy)’이 선정됐다. ‘HEY’라는 흥미 유발 감탄 표현과 함께 ▲역사(History) ▲체험(Experience) ▲음식(Yummy)이라는 전북 관광의 대표 요소를 한 단어 안에 함축한 점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우수상에는 ▲‘전북, 한국의 맛과 멋’ ▲‘감동맛춤, 전북에서!’ ▲‘Feel 전북, Fill 전북’ ▲‘재밌G 즐겁G 행복G 전북여행’ 등 총 4작품이 선정됐다. 각 작품은 전북을 대표하는 맛·멋·문화·정

서·여행 감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여 주목을 받았다.

전북도는 수상작에 대해 최우수상 200만 원, 우수상 각 50만 원의 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며, 응모자 중 200명을 추첨해 기프트콘 제공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를 현재 추진 중인 ‘전북 관광브랜드 개발 용역’에 반영하여, 향후 슬로건 및 BI(Brand Identity) 개발 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美 관세위기 대응 수출기업 전방위 맞춤 지원

100억 특별자금·수출바우처 신설
전담반 구성 해외전시회 예산 확대
1:1 전문가 매칭·수출보험 지원
기업 수요 반영 선제 대응 체계 구축

전북도는 6일 미국 관세 정책 등 통상 위기에 맞서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 시장 다변화, 애로 해소 및 역량강화 등 맞춤형 정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미국의 대외 무역정책 강화로 철강·알루미늄에 50%의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파생상품과 품목별 관세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월 신속한 대응을 위해 통상정책 전담 조직을 구성해 △수출기업 특별자금 신설 및 정책자금 확대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및 해외전시회 참가 확대 △수출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수출기업 특별자금 100억 원을 신설했다. 거치기간 연장지원 600억 원과 긴급대환자금 200억 원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관세 피해 우려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한다.

신흥시장 개척 등 시장 다변화를 위해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를 새로 조성했다. 해외전시회 참가 예산도 확대해 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적극 뒷받침한다.

오는 12~13일에는 120여 개 기업과 80여 명의 해외 유망 바이어가 참여하는 '2025 JB-FAIR'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신규 판로 발굴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 나선다.

신규 수출국 진출에 필요한 규격인증 취득 지원을 늘렸다. 관세 리스크 대응을 위한 통상 전문가 밀착 지원도 강화했다. 기업과 전문가를 1:1로 매칭해 대면 상담은 물론 이메일, 카카오톡, 전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상담을 제공한다.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설명회'를 지속 개최해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기

업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있다. '미국 통상정책 대응 종합대책'도 수립했다. 1,800여 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메일링 서비스·유관기관 홈페이지 게시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제공 중이다.

한편 전북도는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단기 수출보험과 수출신용보증 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수출보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EMS·국제물류비의 50% 지원 등 국제 특송 및 해외물류 비용 부담도 경감하고 있다. 수출기업 지원 관련 세부 사항은 전북수출통합지원시스템(jbexpo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정철 기자

조국, 비대위원장 사퇴...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전당대회 23일 청주 오스코서
오늘부터 10일까지 후보 접수



조국 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23일 예정된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위원장직을 6일 사퇴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저는 오늘 오후 비대위원장을 사퇴한다. 당대표 직에 출마하기 위함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전국을 도는 당원간 담회에서 많은 비판과 조언을 준 당원 동지들께 감사하다"며 "비대위를 통해 중요 사실을 깨달았다. 자기 성찰과 상호 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에)저는 오늘 비대위원장 직을 내려놓지만 남은 '뉴파티 비전'도 잘 마무리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혁신은 끊임없는 이어달리기"라며 혁신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에서 만든 혁신안을 오는 23일 선출되는 차기 지도부가 수용해 당의 혁신을 위해 계속 이어달릴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마련한 혁신안을 차기 지도부가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당은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를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5일간 접수한다.

당은 오는 23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신임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한편 조 위원장의 사퇴에 따라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겸 비대위 부위원장인 서용진 의원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서울=김영목기자

道, 고창서 '생생마을 공동체 한마당'...농촌 연대의 장

6일 14개 시군 900여명 참여
우수 농촌활동가 시상·비전 선포
대동놀이 등 소통·화합 프로그램

전북도는 6일 고창군 군립체육관에서 지역주민과 농촌현장활동가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생생마을 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공동체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화합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도내 농촌마을에서 추진된 우수 마을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14개 시군의 중간지원조직들이 상호 교류하며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14개 시군 농촌현장활동가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우수 활동가 시상

▲비전 선포식 ▲주민 참여 공연 ▲플래시몹 ▲대동놀이 ▲강강수월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으며, 시·군별 중간지원조직 홍보 부스에서는 올해 우수 성과물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한 농촌현장활동가는 "농촌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간 지속적인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현장활동가의 역할을 도민들께 알릴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소명감을 갖고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촌 활력을 위해 헌신해 주고 계신 농촌현장활동가와 마을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도는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활력 제고를 위해 현장활동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는 6일 '공동체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화합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고창군 군립체육관에서 지역주민과 농촌현장활동가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생생마을 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전북도>

전북도, 국비확보 '속도전' 2027 신규사업 조기 발굴

사업 조기 발굴 1차 보고회 열어
166건 2천억 규모 신규사업 선정
연내 2차 보고 8천억 확보 목표

전북도가 6일 202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실국별 추진 전략을 점검하는 1차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문화체육관광국, 복지여성보건의국, 건설교통국 등 행정 분야 실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는 10일에는 김중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경제 분야 실국 회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도는 이번 1차 발굴을 통해 2027년 반영을 목표로 총 166건, 국비 요구액 2,005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선정했다. 2028년 사업까지 포함하면 총 171건, 총사업비 16조 7,499억 원에 이른다.

국가예산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사업발굴 선제대응 및 향후 추가 발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절감된 예산을 AI, 에너지, 복지 등 미래 전략분야에 재투자하는 기조로 전환함에 따라 전북 역시 기존 SOC 중심에서 탈피해 국정과제 연계 및 미래 신성장 분야 신규사업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도출됐다.

12월부터는 전북연구원과 국책사업 발굴추진단을 풀가동, 대형 국가예산 사업 발굴에 나선다. 도지사 주재 2차 보고회를 열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부처안 확정 전인 4월까지 국비 요구액 8,000억 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신규사업 발굴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계획 반영, 타당성 조사, 중기사업 계획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절



전북도가 6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을 조기 발굴하고 실국별 추진 전략을 점검하는 1차 보고회를 열었다. 사진은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

<사진=전북도>

차도 적기에 완료해 2027년 정부예산 안에 발굴사업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국가예산은 선제적인 발굴과 충분한 논

리 준비가 뒷받침되어야만 실제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북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가 그룹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에 도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1면에서 이어짐>

10명의 전북 국회의원들이 신규 반영 및 증액 반영시키기로 한 사업은 30개 사업은 다음과 같다.

이들 30개 사업 중 국립모두예술컴플렉스 건립, 협업지능피지컬 AI기반 SW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디지털 트윈기반 사용자 대터리 재자원화 최적화 센터구축, 고창용계리 청자요지 역사공원조성 등 4개 사업은 증액사업이고, 나머지 26개 사업은 신규 반영사업이다.

다음은 의원별 사업이다.

▲김윤덕의원 국립모두예술컴플렉스 건립,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특화 분관건립,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이성윤의원 AI융합 영화·영상 실증지원센터건립, 삼천 세내역사문화마당 조성사업,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사운드 댐 구축 ▲정동영의원 협업지능 피지컬 AI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전북 전주시 가상융합 미래기술 실증혁신기반 조성, 고래위를 걷는 상상의 나라 K-LAKE조성 ▲신

영대의원 국립의용소방대연수원 건립, 자율주행 상용차 실험장 모사기반구축, 디지털트윈기반 사용자 배터리 재자원화 최적화센터 구축 ▲이춘석의원 국립의산식품관 관립, 석재산업 지원센터건립, 익산역 확장 및 선상주차장 조성 ▲한병도의원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익산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 한의임상교육센터 설립 ▲윤준병의원 기초연구인프라 우주방사선영양평가용 연구시설구축, 고창용계리청자요지 역사공원조성, 팻푸드 소재산업화 플랫폼 구축 ▲이원택의원 새만금 국가정원조성, 농업로봇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시설농업로봇 실증기반 구축, 부안군 탄소중립체험관 건립 ▲박희승의원 AI기반 차세대 엑소스keleton 및 표준화개발,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 남원 경철수련원 신축 ▲안호영의원 전북혁신도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진안홍삼한방 공공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덕유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등이다.

/서울=김영목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수칙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서행운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주)크로스허브, CES 2026서 ‘최고혁신상’ 수상

아이디블록·블록페이 세계 시장서 핀테크 기술력·혁신성 인정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은 세계 최대 전시회 ‘CES 2026’에서 ㈜크로스허브(대표 김재설)가 핀테크(FinTech) 부문 CES 최고혁신상(Best of Innovation Awards)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CES 혁신상(CES Innovation Awards)은 주관기관인 미국소비자기술회의(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매년 CES 참가 제품 중 디자인·엔지니어링·기술 완성도·시장 혁신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는 권

위 있는 상이다.

특히 ‘최고혁신상(Best of Innovation)’은 각 부문별 평가점수 최상위 제품에만 수여되는 최고 영예의 상으로, 세계 시장에서 혁신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제품만이 선정된다.

세계 최대 전시회 ‘CES 2026’는 오는 2026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다.

㈜크로스허브는 단기 방문 외국인 위한 블록체인 기반 신원 인증 및 간편결제 서비스 ‘Financial Passport by IDBlock(아이디블록) and B·Pay(블록페이)’로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된 서비스는 해외 단기 방문객이 현지에서 앱 서비스나 결제 기능을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

‘아이디블록(IDBlock)’은 분산신원인증(DID) 기술을 적용해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블록페이(B·Pay)’는 이를 기반으로 한 간편결제 기능을 통합해 배달, 모빌리티, 숙박 예약, 온라인 서비스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

㈜크로스허브는 이번 수상 및 CES 참가를 계기로 북미와 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전북 도내 기업 8개사(㈜크로스허브, ㈜하다, ㈜에어랩, ㈜퓨처덕, 딥세일즈㈜, ㈜엘앤디테크, ㈜관외, ㈜모스터일렉(단독관))의 CES 2026 전북 공동관 및 단독관 참가를 지

원한다.

지원항목은 CES 부스 입차 및 디자인 설치, CES 혁신상 컨설팅 및 신청비용, 항공·숙박비(일부), 통역, 디렉토리북 제작, 홍보 등이다.

(재)전북테크노파크의 이규택 원장은 “㈜크로스허브의 CES 최고혁신상 수상은 전북 지역 스타트업이 보유한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혁신성을 세계무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쾌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혁신기업들이 CES와 같은 국제 전시회를 통해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롯데백화점 전주점, 동절기 화재 예방 ‘강화’

민관 합동 실제 상황 가정 대응·대피 훈련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강정구)은 6일 오전 9시 40분부터 동절기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완산소방서, 덕진소방서, 서신119안전센터와 함께 민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롯데백화점 전주점 전 직원이 참여해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한 초기 대응 및 대피훈련을 진행했다.

또 소방당국과 함께 화재 진압 및 인

명 구조 절차를 점검하고 현장의 안전 확보와 화점의 제거를 목표로 훈련이 진행된 가운데 이날 훈련에는 유관기관의 구조차와 소방용 구급차,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등의 차량과 장비가 동원됐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안전관리팀 홍정표 팀장은 “동절기에는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고객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6일 오전 9시 40분부터 동절기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완산소방서, 덕진소방서, 서신119안전센터와 함께 민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농진청, 감귤 부산물 자원 순환 기술 개발

악취 저감제·해충 유인제 등 친환경자재로 재탄생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감귤 부산물 자원 순환 기술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귤부산물은 악취 저감제·해충 유인제·토양 개량제 등으로 재활용되는 친환경 자재로 재탄생된다

지난 2024년 기준 한해 감귤부산물은 4만 톤가량 발생하지만 대부분 폐기하거나 축산 농가용 사료로 단순 활용되고 있다.

이에 연구진은 부산물 활용 다각화를 목표로 부산물 약 30%를 차지하는 찹줄수(탈리액)는 악취 저감제와 해충 유인제로 약 70% 차지하는 고체 상태의 껍질과 펄프(과육)는 토양 개량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악취 저감 미생물제는 감귤 부산물 찹줄수(탈리액)를 살균, 중화한 뒤, 유산균,

고초균, 효모 등 유용 미생물을 배양해 제조한다.

이렇게 개발한 악취 저감제를 양돈 분뇨 저장조 2곳에 투입한 결과, 주요 악취 성분인 암모니아와 황화수소가 각각 91%, 99% 감소함을 확인했다.

실제로 분뇨 악취를 제거한 액비는 분뇨 처리업체에서 저렴하게 수거해 2000마리 규모 양돈 농가 기준 연 소득 3700만 원의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친환경 해충 유인제는 감귤즙을 짜는 과정에서 나오는 리모넨 성분을 이용해 만든다.

리모넨과 페로몬을 조합해 만든 이 유인제는 고구마, 인삼, 배의 잎과 뿌리에 피해를 주는 큰검정풍령이 암컷 유인에 뛰어난 효과를 보였다.

감귤 부산물의 리모넨을 활용하면 시중에 판매되는 리모넨을 직접 구매해 유인제를 만들 때보다 비용을 70% 절감할 수 있다

토양 개량 자재는 고체 형태인 껍질과



농촌진흥청은 감귤 부산물 자원 순환 기술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귤부산물은 악취 저감제·해충 유인제 등으로 재활용되는 친환경 자재로 재탄생된다

펄프를 원료로 만들었다. 땅심을 기르는 이 자재는 질소·탄소 비율과 인·칼륨 등 영양분 함량, 배합 물질을 조절해 작물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다.

특히, 흙에 섞어주면 기존 토양 자체보다 물을 머금는 능력(보수성)이 50% 이

상 향상돼 식물의 수분 스트레스를 약 90% 줄일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감귤 부산물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환경성 평가를 추진해 감귤 폐기물 활용 법령 개정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혜민 기자



전북농협 이정한 총괄본부장과 동강제농협 최진오 조합장은 지난 5일 실키핑크 토마토 롯데마트 첫 출하 상차식을 가졌다.

‘실키핑크토마토’ 롯데마트 첫 출하

김제서 전국 매장으로 됐다.

전북농협 이정한 총괄본부장과 동강제농협 최진오 조합장은 지난 5일 실키핑크토마토 롯데마트 첫 출하 상차식을 가졌다.

‘실키핑크토마토’는 김제 지역에 서만 생산되는 전북농협 고품질 토마토다.

토마토는 은은한 분홍색 과육과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고 있다.

‘실키핑크토마토’ 출하 상차식은 동강제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진행

됐다. 특히 ‘실키핑크토마토’는 일반 방울토마토보다 당도가 높아 입안 가득 달콤한 맛이 퍼지는 것이 특징이다.

전북농협은 롯데마트 전국 매장 입점을 통해 ‘실키핑크토마토’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농가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롯데마트 전국 주요 매장에서 ‘실키핑크토마토’를 만나볼 수 있다.

/김영태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25년도 하반기 중대재해 발생을 대비한 밀폐공간 질식사고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LX, 밀폐공간 질식사고 대응 훈련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가 2025년도 하반기 중대재해 발생을 대비한 밀폐공간 질식사고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공공기관 및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가정한 실전형 모의훈련으로 진행됐다.

특히 어명소 사장 주재로 안전관리처, 자산관리처, LX파트너스 등이 모두 참여해 협력적 대응 능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달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지하 기시설 등 실제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를 토대로 이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전파를 점검했으며, 각 부서별 임무를 명확히 했다.

안전관리처는 초기 대응을 총괄하고 응급처치 등을 담당하며 자산관리처는 밀폐 작업 관리, 구조와 후송 지원 등을 수행하는 등 실제 재난재해 발생 시 혼선 없이 신속히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어명소 사장은 “관련 부서 및 협력사 간 역할 분담과 협업 체계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직원과 협력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중기중앙회 “ESG 이행 위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필요”

ESG 경영 확산 정보 공유 환경규제 대응력 제고

중소기업중앙회는 ‘2025년 제2차 환경·ESG 위원회를 6일 개최했다.

위원회는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 위한 정보 공유 및 환경규제 대응력 제고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에는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 및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맹학균 기후환경에너지부 자원재활용과장이 ‘EU 에코디자인법(ESPR)’ 및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국내 제도화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형 에코디자인법 도입 필요성과 EU 제도와와의 차이점,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최상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과정평가실장이 ‘환경라벨링 제도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주제로 환경정책 방향과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시제도를 소개했으며, 이후 제도 특징과 혜택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더불어 △ESG 주요 규제 등 관련 현안 공유 △환경·안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등 업계의 환경규제 대응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업종별 환경규제 대응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상훈 환경·ESG위원장은 “한국형 에코디자인법 도입과 국내 ESG 공시 의무화 추진 등 국내 중소기업 ESG경영 도약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중소



중소기업중앙회는 ‘2025년 제2차 환경·ESG 위원회’를 6일 개최했다. 위원회는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 위한 정보 공유 및 환경규제 대응력 제고 위해 구성됐다.

기업 ESG경영 확산을 위해 정부의 섬세한 지원과 현장 의견청취, 중소기업

ESG 경영 참여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북 GPT’로 수업 환경 대폭 개선한다

생성형 AI ‘전북 GPT’ 정식 오픈 최적화된 답변 비교·분석 가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사의 수업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9월 교육용 소프트웨어(SW) 3종을 지원한 데 이어 최근에는 ‘생성형 AI 서비스(전북 GPT)’를 정식 오픈해 지원을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전북Writing(글쓰기 첨삭) △전북 Quiz(퀴즈·보드 활동) 등 기존 3종과 더불어 전북 GPT(생성형 AI)까지 총 4종의 강력한 교육용 소프트웨어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

이번에 보급한 ‘전북 GPT’는 교원의 수업환경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제미니(Gemini) 2.5 Pro 등 최신 AI 모델을 교사들이 직접 선택,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질문의 성격에 따라 최적화된 답변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도내 모든 학생과 교원은 학교 계정을 발급받으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교원들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용 메신저 킷메뉴에 바로가기 링크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3종 소프트웨어를 학교30 포털을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식 오픈에 앞서 지난달 16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교사 시험 운영에서는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한 중학교 교사는 “근무 중 궁금한 사항을 바로 입력해 알 수 있어 정말 좋다”

고 평가했으며, 또 다른 초등학교는 “수업을 구상하는 데 채팅을 활용했는데 아주 유용했다. 교육청에서 교원을 위해 신경 써주어 감사하다”는 의견을 남겼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교육용 SW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은 덜고, 학생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소프트웨어와 AI를 활용한 즐거운 수업으로 학생과 교원 모두가 만족하는 미래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 골프, 전국체전 ‘최고 성적’ 옛 명성 되찾아

남자 일반부 단체전 금메달 등 골프 메카로

6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한동안 주춤했던 전북 골프가 지난달 막을 내린 전국체육대회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비상하고 있다. 전국체전 당시 골프 남자 일반부 단체전에 나선 안해전(한국체대), 김태규(성원고), 김하민(만경고)은 호쾌한 드라이브 샷과 정교한 아이언 샷을 선보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안해전은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차지하며 대회 2관왕을 차지했고 이같은 좋

은 성적으로 골프종목 종합 2위를 달성함과 동시에 1,252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전북 선수단에게 선물했다.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이영국 전북골프협회장의 든든한 지원이 한 몫했다는 후문이다. ‘전북을 골프 메카로 만들겠다’는 이영국 회장은 선수 지원 및 각종 대회 유치 등을 활발히 펼치고 있고 도내 고등학교 골프 특기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또 이 회장은 전북도체육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며 골프 종목을 넘어 전북 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다. /장정철 기자



6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에 따르면 한동안 주춤했던 전북 골프가 지난달 막을 내린 전국체육대회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비상하고 있다.

전북대, 미래 비전 선포 “대학과 지역 함께 성장하겠다”

RISE사업단 연구 클러스터 구축등 4대 추진 전략 제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6일 전북대학교 RISE사업단 비전 선포식을 열고,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전북형 혁신 플랫폼’의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강영석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도지사 대리), 전북RISE위원회 위원, 전북RISE센터 채수찬 센터장, 도내 대학 RISE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양오봉 총장은 기념사에서 “이번 비전 선포식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전북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도약을 향한 출발점”이라며 “Resilience(회복력), Initiative(주도성), Sustainability(지속가능

성), Empowerment(역량강화)의 네 가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대 RISE사업단의 비전 슬로건 ‘더 전대 라이즈 플러스(The JeonDae RISE+)’를 중심으로 △융복합 창의인재 양성 △산학연 협력 기반 연구 클러스터 구축 △글로벌 협력 확대 △창업·청년기업 지원 등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JB-스타트업 캠퍼스’ 구축을 통해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이 이어지는 지역 창업 허브를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전북대 공과대학 전자공학부 조형기 교수의 ‘2026 CES 혁신상’ 수상 사례가 소개돼, RISE사업이 지역 산업 혁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학교는 RISE사



전북대학교는 6일 전북대학교 RISE사업단 비전 선포식을 열고,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전북형 혁신 플랫폼’의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업을 통해 지역 산업·인재·대학이 하나로 연결되는 ‘전북형 혁신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며 “청년이 머물고 산업이 발

전하는 지속 가능한 전북의 미래를 만드는 데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총 “교과서 청렴조사 즉각 중단해야”

국민권익위에 강력 유감 표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전국·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렴 관련 콘텐츠가 포함된 교과목 및 교과서 출판사 현황’을 조사하도록 한 공문이 각 시도교육청으로 하달된 사실에 대해 학교 자율성과 교사의 교수권을 침해하는 행정 간섭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 중인 이번 조사는 ‘초·중·고·대학생 청렴교육 의무화’를 근거로 학교별 교과서와 학년별 청렴 관련 단위 및 교과목 현황을 엑셀 양식으로 작성·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교과서 채택 및 출판사별 현황까지 포함돼,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권을 넘어 헌법이 보장한 교육 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 전북교총은 “청렴교육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육부나 교육청의 권한 영역을 넘어 교

과서 내용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행정권의 월권”이라며, “특히 이번 조사 결과가 청렴정책 실적 자료나 기관 평가 지표로 활용될 경우, 학교가 자율적 교육활동을 기획·운영할 여지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또한 전북교총은 “교과서의 청렴 관련 내용을 조사하겠다는 국가교육과정만 분석해도 충분하다”며 “교과서는 국가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제작되며, 이미 교육부 심의와 검정을 거친 공적 자료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북교총은 “굳이 학교별 교과서 목록을 수집할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요구는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자칫 학교 간 비교와 평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총은 “교과서 내용에 대한 중앙기관의 개입은 교육과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들 수 있으며, 오히려 청렴하지 않은 방향으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지자체, 유보통합 실현 방안 ‘모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변화하는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행력 제고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6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교육청-지방자치단체 유보통합 업무담당자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유보통합 업무담당자, 도청 및 시·군·보육 업무담당자 등 영유아교육·보육 지원 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도교육청·도청의 협력뿐 아니라 기초지자체에서 파견한 직원들과 교육지원청 유보통합담당 장학사들이 한데 모여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강에는 이병승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장이 참여해 ‘유보통합 정책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이재명 정부의 유보통합 주요 정책과 앞으로의 추진 방안을 설명했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교육청-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면서 유보통합을 이뤄 우리 아이들을 내실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아름다운 가을 산 더 오래 볼 수 있도록

환경보호 수칙도 지키자!

쓰레기는 확실히 처리하기

내가 만든 쓰레기는
모두 가져가는 것이
원칙!

자연 그대로 보전하기!

산행중 아름다운 자연에 흘러
꽃을 꺾거나,
에쁜돌 채기는
행위 금지!

야생동물 존중 하기

등산 중 마주친 야생 동물은
위협하거나, 해치지
말아 주세요.

군산시 '장애인 생산품 전시 행사' 성황…일자리 안정·자립 지원

군산시가 6일 군산시청 1층 로비에서 장애인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전시 홍보 및 판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판매전은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주관으로 군산추진장애인보조작업장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한 세제, 수건, 제과류, 생활용품, 행등 사무용품 등 다양한 제품이 선보였다.

행사장을 방문한 시민들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품질 좋은 제품을 구매하면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동참할 수 있어 뜻 깊었다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생산품의 지속적인 홍보와 판매 확대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독감 환자 '3배 이상 급증' 정읍시, 무료접종 대상자 확대

전국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1년 전보다 3배 이상 급증하며 '10년 만에 최악'의 유행이 우려되자 정읍시가 시민들의 신속한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나섰다.

질병관리청이 2025년도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정읍시는 6일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질병청은 2025-2026학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난해보다 두 달가량 일찍 시작됐으며, 올해를 지난 절기처럼 크게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최근 유행 중인 바이러스는 A형(H3N2)으로, 다행히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시행 중인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인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의 정기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60세 이상 시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무료접종 사업 대상자에 포함해 지원을 확대했다.

무료접종 대상자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 겨울에도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적극적으로 접종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3차 산업재해 예방 교육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정읍시가 지난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간기업 사업주와 안전보건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올해 3번째로 실시되는 교육으로, 민간사업장 관계자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의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장을 역임한 고광열 강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고 강사는 사업장 중대재해 사례 및 대응방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위험성평가 방법 등의 내용으로 강연했다.

교육에 참석한 민간기업 사업주와 안전보건 담당자들은 실제 사례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강의 덕분에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예방 조치와 대응 방법에 대해 숙지할 수 있었으며, 겨울철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큰 호응을 보였다.

이학수 시장은 “겨울철 한파, 미끄럼 그리고 난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각종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세심히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업현장의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오늘 교육이 각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안전관리 강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 수산업 재도약의 힘찬 ‘출항’

수산식품단지 핵심 거점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단지 기공식

군산시가 6일 글로벌 K-씨푸드 선도시 도약의 전진기지가 될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단지'(이하 '스마트 수산가공센터')와 민간입주기업(11개소)을 포함한 '군산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이하 '수산식품단지')의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로써 시는 새만금 간척사업 이후 위축된 지역 수산업을 첨단 스마트 수산식품산업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출발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해양수산부, 국회의원,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도·시의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식품연구원을 비롯해 관내 식품기업, 어업인단체, 지역대학의 관계자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

기공식은 수산산업과장의 △사업 경과보고 △내빈 인사 △수산식품단지 구성원·입주기업·지역어업인의 시삽 △상생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새만금 시대를 여는 군산 수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다짐했다.

본 시설은 2022년 해양수산부 공모로 선정됐으며, 총 사업비 381억 규모의 연구개발(R&D) 중심 공공시설이자 수산식품단지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핵심 거점 공간이다.

특히, 과거부 산하 식품전문기관 한국식품연구원이 초기부터 참여해 수산식품 분야에서는 최초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할 예정이다.

이로써 보다 높은 식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 HACCP 시스템 적용할 예정인 '스마트 수산가공센터'는 지난 10월 시공업체를 선정해 착공에 이르렀다.

이로써 보다 높은 식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 HACCP 시스템 적용할 예정인 '스마트 수산가공센터'는 지난 10월 시공업체를 선정해 착공에 이르렀다.

이로써 보다 높은 식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 HACCP 시스템 적용할 예정인 '스마트 수산가공센터'는 지난 10월 시공업체를 선정해 착공에 이르렀다.

이로써 보다 높은 식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 HACCP 시스템 적용할 예정인 '스마트 수산가공센터'는 지난 10월 시공업체를 선정해 착공에 이르렀다.

이로써 보다 높은 식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 HACCP 시스템 적용할 예정인 '스마트 수산가공센터'는 지난 10월 시공업체를 선정해 착공에 이르렀다.

이로써 보다 높은 식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 HACCP 시스템 적용할 예정인 '스마트 수산가공센터'는 지난 10월 시공업체를 선정해 착공에 이르렀다.

이로써 보다 높은 식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 HACCP 시스템 적용할 예정인 '스마트 수산가공센터'는 지난 10월 시공업체를 선정해 착공에 이르렀다.

이로써 보다 높은 식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 HACCP 시스템 적용할 예정인 '스마트 수산가공센터'는 지난 10월 시공업체를 선정해 착공에 이르렀다.

이로써 보다 높은 식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 HACCP 시스템 적용할 예정인 '스마트 수산가공센터'는 지난 10월 시공업체를 선정해 착공에 이르렀다.

이로써 보다 높은 식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 HACCP 시스템 적용할 예정인 '스마트 수산가공센터'는 지난 10월 시공업체를 선정해 착공에 이르렀다.

이로써 보다 높은 식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 HACCP 시스템 적용할 예정인 '스마트 수산가공센터'는 지난 10월 시공업체를 선정해 착공에 이르렀다.

이로써 보다 높은 식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 HACCP 시스템 적용할 예정인 '스마트 수산가공센터'는 지난 10월 시공업체를 선정해 착공에 이르렀다.

이로써 보다 높은 식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 HACCP 시스템 적용할 예정인 '스마트 수산가공센터'는 지난 10월 시공업체를 선정해 착공에 이르렀다.

이로써 보다 높은 식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 HACCP 시스템 적용할 예정인 '스마트 수산가공센터'는 지난 10월 시공업체를 선정해 착공에 이르렀다.

이로써 보다 높은 식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 HACCP 시스템 적용할 예정인 '스마트 수산가공센터'는 지난 10월 시공업체를 선정해 착공에 이르렀다.

이로써 보다 높은 식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 HACCP 시스템 적용할 예정인 '스마트 수산가공센터'는 지난 10월 시공업체를 선정해 착공에 이르렀다.

이로써 보다 높은 식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 HACCP 시스템 적용할 예정인 '스마트 수산가공센터'는 지난 10월 시공업체를 선정해 착공에 이르렀다.

이로써 보다 높은 식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 HACCP 시스템 적용할 예정인 '스마트 수산가공센터'는 지난 10월 시공업체를 선정해 착공에 이르렀다.

이로써 보다 높은 식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 HACCP 시스템 적용할 예정인 '스마트 수산가공센터'는 지난 10월 시공업체를 선정해 착공에 이르렀다.

명이 참석했다.

기공식은 수산산업과장의 △사업 경과보고 △내빈 인사 △수산식품단지 구성원·입주기업·지역어업인의 시삽 △상생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새만금 시대를 여는 군산 수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다짐했다.

본 시설은 2022년 해양수산부 공모로 선정됐으며, 총 사업비 381억 규모의 연구개발(R&D) 중심 공공시설이자 수산식품단지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핵심 거점 공간이다.

특히, 과거부 산하 식품전문기관 한국식품연구원이 초기부터 참여해 수산식품 분야에서는 최초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할 예정이다.

이로써 보다 높은 식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 HACCP 시스템 적용할 예정인 '스마트 수산가공센터'는 지난 10월 시공업체를 선정해 착공에 이르렀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미래 동물헬스케어 중심지 ‘우뚛’

신기술 실증~상용화까지 규제자유특구 후보지 선정

익산시가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지로 선정되며, 미래 동물헬스케어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기반을 다졌다.

6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서 후보로 선정된 특구 사업은 동물의약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실증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본지정이 확정될 경우 실험실 단계에 머물러 있던 신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실증하고, 상용화까지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최종 지정 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45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시가 2020년부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과 맞물리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전망이다.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단계별로 추진 중이다.

우선 1단계인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는 지난해 준공돼 운영 중이다.

2단계 시제품 생산시설은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시는 3단계인 임상시험센터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번 특구 사업은 (재)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이 총괄기관을 맡아 추진되며, 지역 기업들이 실증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실증 결과는 국내 제도 개선과 산업 표준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후보 특구 선정은 익산이 동물용의약품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한 결과”라며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의 조기 완성과 전주기 지원체계를 통해, 대한민국 동물 의약품 산업의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실전 중심 청년 취업 캠프 ‘호응’

자소서부터 모의면접까지 참가자 95% 이상 만족

익산시는 지역 대학생 등 청년 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 익산지역 대학교 특화 JOB-UP 캠프'를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의 실질적 취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실전 중심의 캠프로 진행돼, 만족도 조사 결과 참가자의 95% 이상이 '만족' 또는 '매우 만족'으로 응답하며 높은 호응을 보였다.

지난 4~5일 익산청년시청에서 열린

캠프는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실습 △인공지능(AI) 기반 자소서 첨삭 △현직 인사담당자 멘토링 △모의면접 △직무별 특강 등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첫째 날에는 채용 트렌드 분석, 성격유형검사(MBTI)를 활용한 진로 설계, 챗지피티(ChatGPT)를 활용한 자소서 작성이 이뤄졌다. 또 전문 취업컨설턴트 6명이 1:1 맞춤 피드백을 제공해 개인별 강점 분석과 취업 전략 수립을 도왔다.

둘째 날에는 한국전력공사·ECO융합섬유연구원·농협은행·LG화학·삼양식품 등 주요 공기업 및 대기업 인사담당

자가 참여한 채용설명회와 멘토링 세션이 열렸다.

현장에서는 '기업 담당자에게 직접 조언을 들으니 실질적인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된다',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취업 지원을 받으니 만족스럽다'는 호응이 이어졌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실질적인 취업역량을 키우고 자신감을 얻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정착하고 꿈을 키워가는 청년친화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주요 현안 추진상황 점검

39개 현안18개 미달성 합동평가 지표 종합 관리

군산시가 11월 5일부터 6일까지 '2025년 주요 현안 및 합동평가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올해 세 번째로, 연내 가시적 성과 창출과 주요 과제 마무리를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총 39건의 현안 사업과 10월 말 기준 합동평가 미달성 18개 지표를 살펴보고, 핵심 사업과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별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논의된 주요 현안 사업은 미래 성장을 견인할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산업생태계 육성 △풍수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사업 등이 포함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심도깊게 논의했다. 김영민 부시장은 “주요 현안과 합동



평가 지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고 행정 신뢰를 가능하는 척도”라며, “올해 남은 기간은 물론 내년도 사업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 청년농업인에 ‘월 110만원’ 지원한다

영농정착지원자 모집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2026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을 위해 올해 오는 12월 11일까지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이 농업 분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이거나 영농예정자인 청년들이다.

청년농업인으로 선발되면 최대 3년간 영농경력에 따라 월 9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영농정착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다.

김원심 농촌지원과장은 “영농에 관심 있는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조류독감 방어 ‘총력’

익산시가 고병원성 조류독감(AI)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 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전면 대응에 나섰다.

시는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전북지역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지역 내 전염 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전북권역에서 야생조류를 통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검출되면서 방역 강화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여성 고용 협약 ‘역대 최대’

올해 20개 기업·기관 추가

정읍시가 여성 고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정읍새일센터)는 11월 초까지 ㈜하림 등 20개 기업·기관과 추가 협약을 맺으며 올해 총 39개소와 협력관계를 구축, 여성들을 위한 든든한 취업 지원망을 확충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0월 27일 ㈜하림과의 협약을 시작으로 11월 초까지 이어진 이번 신

규 협약에는 ㈜케이푸드정읍지점, 우원푸드농협회사법인㈜ 등 10개 기업이 참여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과 기관들은 여성 인력 고용 확대와 양질의 취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정읍새일센터는 이들 협약 기업을 대상으로 새일여성인턴ships을 우선 연계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등 찾아가는 재직자 교육과 취업 연계 서비스 같은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 드림스타트-LH, 주거복지 ‘협업’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6일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4층)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과 취약계층 아동

가구의 주거 안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LH의 주거복지 홍보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하나로, 주거복지 사업을 소개하고, 아동복지 대상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주거급여·집수리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드림스타트 담당 및

통합사례관리사, LH 관계자들은 실제 아동 가구의 주거 여건과 복지 욕구를 함께 공유하며,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군산시 아동정책과 이영란 과장은 “LH의 방문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아동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의 실질적 시작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동 가구에 대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LH와 함께 실질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남원시, 200억 투입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산림청 공모 선정 요천로 일원 진행 열섬현상완화·탄소중립 실현 기대

남원시가 산림청이 추진하는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총 200억 원(국비 100억원 포함)을 투입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요천로 일원 등 55ha 규모로 진행되며, 열섬 취약지역에 도시 바람길숲을 조

성하여 도시 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예정이다.

‘도시 바람길숲’은 도시 외곽 산림에서 발생하는 시원하고 깨끗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시켜 대기순환을 원활히 하고, 오염물질과 더운 공기를 외부로 배출시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남원시는 2026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이후 3년간 단계적으로

숲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생활권 녹지와 연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녹색공간을 확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남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만 원의 행복’ 저소득층 재해보험 전액 지원

군·완주우체국 민관협력 복지강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

완주군이 관내 저소득층의 예기치 않은 재해·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손잡고 ‘만 원의 행복보험’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과 민간이 협력해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전액 해소하고,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복지안전을 구축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 5일 완주군은 군청 전략회의실에서 유희태 완주군수, 이명자 완주우체국장, 한명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층 만원의 행복보험 지원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의 가장 큰 특징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전히 없앴다는 점이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보험가입에 필요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지난 5일 완주군은 ‘저소득층 만원의 행복보험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완주군>

완주우체국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서 보험 가입 절차와 운영을 전담한다. 완주군은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홍보·추진을 통해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관리한다.

협약으로 완주군 저소득층 주민들은 재해 발생 시 유족 위로금, 입원비, 수술비 등을 보장받는 공익형 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갑작스러운 사고가 또 다른 불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튼튼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명자 완주우체국장과 한명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도 “지역사회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함께하게 되어 뜻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가동

예방진화대·감시원 100명 배치 공무원 전문 진화대까지 총력

순창군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군은 산불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총 100명을 읍·면 전역에 배치해 산불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군청 산림공원을 중심으로 소방서, 경찰서, 순창군 의용소방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에 나선다.

주요 추진 내용은 ▲산불방지대책본부 24시간 상황근무 체계 운영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감시원 100명 현장 배치 ▲산불 취약지역 순찰 및 감시 활동 강화 ▲임산자 실화 및 소각산불 예방 계도 활동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체계 가동 등이다.

아울러, 군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순창군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사진=순창군>

인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임산자 실화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 발생 시에는 신고 접수 즉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출동해 초동 진화에 나서며, 대형 산불로 확산될 경우 헬기 등 광역 진화 자원을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순창군은 지난 4월 국가 재난 수준의 대형산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 ‘공무원 전문 진화대’를 발족했으며, 자발적으로 참여한 100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 진화대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은 물론 잔불 정리와 후속 조치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 진화장비를 갖추고 운영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산불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귀농귀촌 임시거주로 ‘안정 정착’ 앞당겨

정착 초기 주거부담 해소 입주민 정착률 60% 이상 성과

남원시 농업기술센터가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들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총 22가구 규모의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운영에 적극 나섰다. 이는 귀농귀촌인의 초기 주거 부담을 해소하고, 남원에서의 새 삶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임시거주시설은 지역 생활을 체험하고 자신에게 맞는 정착 지역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이주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주거 문제를 완화하고, 정착 과정에서의 위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같은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힘입어 남원시는 연평균 1,000명 이상 꾸준한 귀농귀촌인 유입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임시거주시설 입주민의 남원 농촌지역 정착률은 60% 이상으로 나타난다.

현재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직접 운영 시설 14가구와 각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시설 8가구를 포함, 총 22가구의 임시거주시설을 운영 중이다.

시는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필요에 맞춰 △ 게스트하우스 2가구 포함 심도 있는 귀농귀촌 교육을 제공하는 ‘주생체 재형 가족실습농장(총 12가구)’ △수지면(3가구)·금지면(2가구)·주천면(2가구)·보절면(1가구) 등 각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임시 거처 ‘귀농인의 집 (총 8가구)’ △주천면과 송동면 지역에 연달부터 남원시농업기술센터가 새롭게 운영하는 ‘남원에서 살아볼까 (총 2가구)’ 세 가지 유형의 임시거주시설을 제공 중이다.

입주자 선정은 신청서를 토대로 그린대로 귀농귀촌 홈페이지 및 남원누리 시민 가입 여부, 신청 연령, 귀농 교육 수료 등을 종합 심사해 이뤄진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자체 운영 시설(귀농인의 집 제외)의 입주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임대료 및 시설 사진 등 상세정보는 남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귀농귀촌 플랫폼(그린대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청년 코칭프로젝트’ 취창업 역량 강화

8일부터 선착순 참가자 모집 스피치·심리·자세 코칭 운영

순창군이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순창청년 코칭프로젝트’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코칭프로젝트는 11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청년문화센터에서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순창군에 거주하는 18세부터 49세까지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말하기 코칭(스피치 마스터) 4회 ▲심리코칭 3회 ▲생활 속 자세 코칭 1회 등 3개 분야로 모든 강좌는 오후 7시부터 2~3시간 동안 진행된다.

‘말하기 코칭 스피치 마스터’는 취·창업을 위한 말하기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변서영 퍼스트 스피치 아카데미 대표가 강사로 나서 자신 있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나를 알고, 너를 이해하고, 우리

를 그리는 심리코칭’은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와 일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타인과의 관계 형성 능력을 높이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보령 위더스 에듀 대표가 강의를 맡는다.

‘활동도 건강해야 할 수 있다! 생활 속 자세 코칭’은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고 활동 중 필요한 스트레칭을 익히는 특강으로 진행된다.

모집 인원은 최대 15명이며, 참가비는 3만 원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선착 강좌가 아닌 전체 8회를 모두 수료해야 하며, 수료 시 참가비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신청은 8일 오전 9시부터 네이버폼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모집이 완료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 간의 교류 활동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블루존 프로젝트’ 고령친화도시 시동

주거·의료·돌봄·여가 통합 구축 도와 TF 가동 마스터플랜 착수

남원시는 올해 8월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고령자 건강 치유마을 조성사업(블루존 프로젝트)’ 대상지로 선정돼 고령친화 정주모형 구축을 본격화한다.

총사업비 2,044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주거·의료·돌봄·여가가 통합된 정주환경을 조성해 고령자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전북도 특화사업이다.

남원시 융정동 일원에 조성될 대상지는 교통 접근성과 자연환경, 의료 인프라가 우수해 고령친화도시로의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고령자복지주택, 의료요양시설, 건강지원시설 등 핵심 인프라를 단계

적으로 도입하고, 마스터플랜 수립과 국가 공모 연계를 추진 중이다.

이에 전북도와 시는 ‘고령자 건강 치유마을 조성 협력 TF’를 공식 가동, 사업의 구체적 실행 방향과 조성 모델 설계를 위한 공동 추진체계에 돌입했다. 지난달 30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남원형 고령자 건강 치유마을 조성 전략과 국가 공모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남원시는 고령자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도입해 은퇴세대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령자에게는 건강한 노후 삶의 기반을, 지역에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고령친화 정주모형을 남원에서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소방서, 제63주년 ‘소방의 날’ 자체 기념행사

유공자 표창·화합의 장 열려 군민 안전 다짐하며 단합 다져

완주소방서(서장 이주상)는 6일 오전 11시 본서 3층 대강당에서 ‘제63주년 소방의 날’ 자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소방의 날은 화재 예방과 국민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헌신과 노고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이날 행사에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소방발전위원회 위원 등 약 80여명이 참여했으며, 사진 공연, 유공자 표창, 오찬, 체육 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유공자 표창에서는 행정안전

부장관, 소방청장, 도지사, 소방서장 표창을 26명에게 전수 및 수여했으며, 평소 소방 업무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을 격려했다.

행사 후에는 기념 케이크 커팅식과 오찬이 마련되어 참석자들이 함께 축하와 화합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서 단체촬영, 족구, 줄다리기 등 체육행사가 진행되어 직원 간 단합과 협동심을 다졌다.

이주상 완주소방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다해 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가을 낭만·힐링 ‘모악산 웰니스 축제’ 개막

8~9일 도립미술관 야외광장서 ‘웰빙·건강·행복’ 체험 다채

완주군은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전북도립미술관 야외광장 일원에서 웰빙, 건강, 행복을 주제로 ‘제3회 완주 모악산 웰니스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세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전국 100대 명산 모악산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먹거리 행사 등이 마련돼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은 물론 가을 나들이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첫째 날 메인 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가수 ‘강하달림’ 그리고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가 가을의

낭만을 더할 예정이다. 이어 둘째 날 열리는 가을빛 Music Party에서는 ‘ZIP4(집사)’와 ‘오지은’이 감미로운 무대로 축제의 분위기를 이어간다.

이외에도 지역주민 공연과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돼 있으며, ‘웰스 릴레이 게임’, ‘노르딕 워킹 체험’, ‘건강 체험’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진행된다. 아울러 극단 창원이 ‘흔들리지 마, 귀동아!’ 아동극을 바른 먹거리’를 주제로 선보인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한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2026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접수

순창군이 2026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12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토양의 건강성을 살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구입비,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유기·무농약 인증 농지 및 일반 농산물 재배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 원료 구입비는 인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유기인증 농지에는 ha당 최대 200만 원, 무농약 인증 농지에는 ha당 최대 150만 원, 관행 농업 농지에는 ha당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을 위한 컨설팅 비용은 전액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친환경농업과 또는 읍·면 산업팀에 문의하고, 신청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한편, 순창군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은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인 가운데에서도 지난해보다 7ha 증가한 1,082ha를 기록하며 소폭 증가했으며, 이는 이러한 흐름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이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동상·생활문화센터 ‘문화자랑’ 성과발표회

완주군 동상생활문화센터(센터장 유경태)가 지난 5일 동상면민운동장 일원에서 ‘동상! 상상 그 이상’ 문화자랑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문화자랑은 센터 수강생들이 1년간 배워온 강좌 활동의 성과를 주민들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수강생 및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풍성한 생활문화축제의 장이 되었다.

행사에서는 색소폰, 통기타, 노래교실, 풍물, 한국무용, 라인댄스 등 7개 정규강좌 수강생들의 공연이 펼쳐졌으며, 완주국악단의 초청공연도 진행됐다.

도예와 캘리그래피 수강생 21명이 참여해 총 80여 점의 작품을 전시했으며, ‘건강한 계획 화분 만들기’ 체험 부스를 운영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경험을 제공했다. 또한 동상면 부녀회가 마련한 먹거리 부스에서는 다양한 음식을 나누며 주민 간 화합과 소통의 시간이 이어졌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 금지면, 노인일자리 어르신 야외활동 진드기 안전교육

금지면행정복지센터(면장 양인환)는 지난 5일 살기 좋은 고을 가꾸기 노인일자리 참여자 50명을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 2층 강당에서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일자리 안전교육은 4회 차이며 일자리 참여 시 가을철 야외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진드기 안전사고 및 각종 사고,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지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익형 일자리 사업으로 살기 좋은 고을 가꾸기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50명의 일자리 참여자가 마을을 가꾸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교육 진행 후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에게 다과를 제공하고 불편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노인일자리 물품(원크랩)도 전달했다.

양인환 금지면장은 “우리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어르신들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어 건강하게 활동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무주군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교육생들, 직접 재배한 배추·무 기부

2025년 무주군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교육생들이 6일 무주군자원봉사센터에 김장용 배추 150포기와 무 100개를 기부하며 훈훈함을 전했다.

교육생들은 “지난 3월 무주군 체제형 가족실습농장에 입소한 뒤로 직접 재배한 무와 배추를 이웃들과 나누게 돼 보람을 느낀다”라며 “귀농의 꿈을 품고 정성으로 키운 만큼 이웃들에게도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은 도시민의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체제형 가족실습농장을 운영 중으로, 거주시설과 개인 텃밭, 공동경작지 및 학습실을 갖춘 게스트하우스를 비롯한 다양한 실습 및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참여한 교육생들은 총 8명으로 3월부터 9개월간 토마토 재배시설과 표고버섯 재배시설, 공동경작지에서의 발작물 재배 실습, 선도농가 방문, 토지 관련 법률교육 등 실무 중심의 귀농·귀촌 정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무주=최희호 기자



백산농원, 남원시 장애인단체에 포도 100박스 기탁

남원 금지면 서매리 소재 백산농원(농장주 문윤기)에서 남원시 장애인단체 7개소를 대상으로 6일 포도 100박스(한가액 150만원)를 기탁했다.

농장주 문윤기 씨는 불편한 몸으로 농사를 짓던 중 자신과 같이 어려운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장애인단체가 입주해 있는 남원시 장애인어울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손수 농사지은 포도를 기탁했다.

꿈드래장애인협회 임광호 회장은 “농사일에 바쁘신데도 직접 장애인단체를 방문하여 기탁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기탁받은 포도는 각 장애인단체에 고루 분배하여 관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전달하겠으며, 장애인단체도 장학금 수여, 연탄 및 난방유, 후원물품 등의 나눔을 지속 실천하여 사회단체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한전 고창지사, 저소득층에 전기압력밥솥 10대 전달

이웃 사랑, 실천으로

고창군 고창읍(읍장 이길수)이 6일 오전 한국전력공사 고창지사(지사장 정연일)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고효율 전기압력밥솥 10대를 기탁받아 관내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했다.

한전 고창지사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전기압력밥솥)을 기탁하고, 고창읍이 대상 가정을 발굴·연계하여 함께 추진한 협력

나눔 활동이다. 두 기관은 겨울철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았다.

전달된 전기밥솥은 관내 홀몸어르신, 장애인가정,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 등 생활여건이 취약한 세대에 우선 배부됐다. 고창읍과 한전 고창지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상생과 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바르게살기운동 진안군협의회, 제5회 한마음대회 개최

5일 진안문화의 집에서 개최 정재철 산악회장 등 표창 수상

바르게살기운동 진안군협의회(회장 김옥봉) 주관으로 제5회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대회가 지난 5일 진안문화의 집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의례 및 성과보고 영상 시청, 유공자 포상 등의 본행사외 부대행사로 화합 한마당의 자리가 열렸다.

행사에는 전춘섭 진안군수, 동창옥 진안군의회 의장 및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운태 의원, 바르게살기운동 전북특별자치도협의회 이종서 회장 등 150여 명의 회원이 함께

했다.

올해로 제5회를 맞이하는 한마음대회는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한 회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행사이다.

수여식에서는 협의회 발전에 공을 세운 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행정안전부 표창은 정재철 산악회장이 수상하고, 진안군수 표창은 박희규 정전면위원회 사무장이 수상했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장 금장은 전춘섭 군수, 허창석 삼전면 위원장이 수상했으며 중앙회장 표창은 김남규 이사, 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장 표창은 신재근 이사, 진안



군협의회 공로패는 김재현 백운면 상했다. 위원장, 박윤삼 부귀면 위원장이 수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읍지사협, 첫돌맞이 가정에 축하 선물 전달

장수군 장수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차주영·민간위원장 김점옥)는 관내 첫돌을 맞은 가정에 20만 원 상당의 선물과 축하금을 전달하며 아이의 첫 생일을 함께 축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4년부터 장수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진 중인 ‘첫돌 축하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의 첫돌을 기념하며 출산·양육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따뜻한 나눔 프로젝트다. 협의체는 첫돌을 맞은 가정에 아기용품과 축하카드를 전달하며, 주민이 함께 아이의 성장을 축하하는 공동체 돌봄의 의미를 더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지역의 관심과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장수읍’을 만들어가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신명환유비크리에이티브 대표, 부안에 300만원 기탁

고향에 전한 따뜻한 마음

부안군은 최근 미디어 콘텐츠 매니지먼트 기업 유비크리에이티브와 디자인 전문업체 공감디자인을 운영하고 있는 신명환 대표가 부안군에 3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신명환 대표는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플랫폼 관련 기획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기부는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해온 신명환 대표가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자발적으로 실천한 것으로 상호기부를 통해 주민 체감형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신 대표는 “평소 지역의 사회적 가치와 기여에 대해 고민해왔는데, 고향사랑기부제가 그 실천의 좋은 통로가 되어주었다”며 “이번 기부가 부안군의 가치 있는 사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완주시니어클럽, 소리공원에 밀원식물 식재

완주시니어클럽(관장 김대관)이 완주군, 한국도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와 협력해 최근 노인공익활동사업 ‘꽃마을사업단’ 참여 어르신들과 함께 완주 소리공원(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648)에 밀원식물을 심었다.

어르신들이 심은 밀원식물은 꿀벌이 꿀을 채취할 수 있는 아스타, 독일국화, 용담, 초설마삭줄 등이다.

이 곳은 지역주민들이 꽃을 감상하는 힐링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자, 어린이와 주민을 위한 생태학습장으로 관리·운영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군산 조촌동지사협, 저소득 고3 수험생에 ‘수능 응원 꾸러미’ 전달

군산시 조촌동 조경한마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도영, 황순정)는 6일, 관내 저소득 가정의 고3 수험생 12명에게 따뜻한 격려의 마음을 담은 ‘수능 응원 꾸러미’를 전달했다.

지역 내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눔 활동으로 호응을 얻고 있는 이번 응원꾸러미는 수험생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꾸러미에는 텃블러, 무릎담요, 종합비타민, 수능 전자시계 등 1인당 14만 원 상당의 물품이 담겼다.

꾸러미를 받은 한 수험생은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담긴 꾸러미를 받아 감동이었다”라며, “비타민, 초콜릿을 먹고 최선을 다해 시험을 보도록 하겠다”라고 기쁨을 나타냈다.

/군산=지승길 기자

■ [알림]

신랑 : 안동언전금수의 아들 종혁 군
신부 : 전용배·김화선의 딸 명현 양
일시 : 11월 8일(토) 오후 4시
장소 : 군산 스테이 호텔 브리앙뜨홀
연락처 : 010 2636 0038 (안동언)



〈一事一言〉



초고령사회 전북, 지역이 돌보는 돌봄체계로 가자

김관춘
논설위원

“돌봄은 제도보다 공동체의 마음에서 출발한다”

이 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 ‘노후의 품격 있는 삶’을 풀어 가는 핵심 열쇠를 제시한다. 전북자치도가 내년부터 전 시·군에 걸쳐 본격 추진하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시대적 대응이다. 돌봄은 이제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공공의 과제가 되었다.

전북의 고령화율은 지난 9월 기준, 26.3%로 전국 평균(20.9%)을 크게 상회한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4명 중 1명을 넘어선 초고령사회다. 노인 인구의 급증과 함께 의료비 부담, 요양시설 의존, 사회적 고립, 돌봄 공백 등 복합적 문제가 이미 심화되고 있다. 기존의 복지·보건 전달체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의료, 요양, 돌봄, 주거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지역사회 안에서 한 사람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통합돌봄체계’는 시대적 필연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이미 14개 시·군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가동했다. 2023년 전주 시 1개소에서 출발한 시범사업은 올해 2개소, 내년 9월에는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되며 사실상

‘전북형 통합돌봄 모델’의 전면 구축 단계로 진입한다.

현재 전주시는 예산지원형,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진안 등 13개 시군은 기술지원형으로 참여해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 연계체계를 정비 중이다. 시군별로 전담 조직 신설과 조례 제정을 병행하며 제도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실제로 전주,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은 이미 조례 제정을 마쳤고, 올해 안에 전 시군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도 차원에서 지난 10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도적 틀이 완비됐다.

전북도는 이를 토대로 내년까지 통합돌봄 전담조직을 전 시군에 설치하고, 도 본청 내에도 전담 T/F팀을 신설해 각 시군의 추진을 총괄·지원할 계획이다. 나아가 사회서비스원, 의료·복지 전문가, 현장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해 행정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고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돌봄의 현장성’과 ‘도민 체감도’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 전북도는 이미 국비 57억 원을 포함한 11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전담인력 인건비, 연계체계 운영비, 지역돌봄서비스 확충 등 실질적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전주, 군산, 정읍, 남원, 김제 등 5

개 시군에서는 22개 유형의 다양한 돌봄서비스가 운영 중이며, 독거노인 방문건강관리, 재가요양 연계, 주거환경 개선, 이동지원 등 구체적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있다.

이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분명하다. 도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즉 ‘지역사회 기반 돌봄(Community Care)’의 정착이다. 요양시설로의 이주나 가족의 과도한 부담이 아니라, 익숙한 지역 안에서 이웃과 함께 삶을 이어가는 돌봄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물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첫째, 전문 인력의 확보와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하다. 돌봄 현장은 행정과 달리 인간의 세심한 관계와 신뢰가 작동하는 공간이다. 현장 인력의 역량이 곧 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한다. 전북도가 단계별 교육과 워크숍을 병행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지만, 향후 도 단위의 통합 인력풀 관리 시스템과 직무 전문화 프로그램이 병행돼야 한다.

둘째, 지역 간 격차 해소도 핵심이다. 전주는 이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나, 농촌 지역은 인력과 시설, 이동 접근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도는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지역 간 편차를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통합돌봄은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장기 복지 인

프라이다.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지방비, 민간 협력, 사회적 기업 모델 등 다양한 재원 확보 전략이 병행돼야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

넷째, 주민의 참여와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합돌봄은 ‘행정의 효율화’가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한 전환을 의미한다. 주민 스스로 돌봄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기반 프로그램, 자원봉사 네트워크, 돌봄협동조합 등 민간 협치 구조를 확대해야 한다.

전북은 이미 농촌형·도시형이 공존하는 다양성을 갖춘 지역이다. 이런 특성은 오히려 전국에서 가장 현실적인 통합돌봄 모델 실험지로서의 장점이 된다. 전북이 성공한다면, 이는 단순한 지역 사업을 넘어 전국 돌봄정책의 표준이 될 수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력이다. 도민의 삶터에서, 익숙한 마을에서,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복지국가의 모습이며, 전북형 통합돌봄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전북자치도의 이번 선제적 대응이 노년의 불안을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며,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사설

수출기업 지키는 전북형 통상종합대책 환영한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50%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출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세계 교역 질서가 보호무역주의로 재편되는 가운데 전북의 중소 수출기업들 역시 수출 둔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불안 등 복합 위기에 놓여 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커지는 대외 환경 속에서 전북자치도가 선제적 통상 대응 체계를 가동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전북도는 통상정책 대응반을 꾸려 맞춤형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핵심은 관세 대응과 함께 자금, 판로, 컨설팅, 인증 지원 등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는 다층적 지원이다. 무엇보다 기업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금융 안전망을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도는 수출기업 특별자금 100억 원을 신설하고 거처기간 연장 600억 원, 긴급 대환자금 200억 원 등 총 900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마련했다. 갑작스런 관세 인상과 수출 피해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에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 다변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초점을 맞춘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전북도는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를 새로 조성해 신흥시장 개척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오는 12~13일 열리는 ‘2025 JB-FAIR’에는 120여 개 기업과 80여 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여해 새로운 거래선을 모색한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기업 맞춤형 사후관리’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도는 기업과 통상 전문가를 1:1로 매칭해 실시간 컨설팅을 제공하고 메일링 서

비스와 설명회를 통해 미국 관세 정책의 변화와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도는 지난 8월 도내 1,800여 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수출바우처·보험료 등 수요 맞춤형 지원(24%)과 해외시장 개척(23%)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도 수출 지원정책을 기업 수요 중심으로 설계, 바우처와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전북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대기업 의존도가 낮아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높다. 따라서 통상위기 때마다 가장 먼저 흔들리고 가장 늦게 회복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번 대책은 이런 지역 산업 구조를 감안할 때 단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 수출 생태계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도 필수적이다. 전북도의 정책금융 확대와 컨설팅망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 등과 긴밀히 연계해 수출보험 확대, 통상 분쟁 대응 지원, 해외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

글로벌 통상환경은 더 이상 과거의 규칙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기술 패권, 기후 변화,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변수들이 시장 질서를 흔들고 있다. 이런 시대 일수록 지역이 중심이 되어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이 경쟁력이다. 이제 전북의 통상정책은 ‘방어’에서 ‘공세’로 나아가야 한다. 위기 속에서도 길을 찾는 전북수출의 새로운 돌파구, 그 출발점이 바로 지금이다.



오늘의시

가을 첫발 / 차 옥 혜

가뭄, 장마, 폭풍 이기고
검은깨 추수를 마치자
벌여지기 시작하는 호두
백 년생 늙은 감나무에
꽃처럼 주렁주렁 매달린 감
뚝뚝 떨어져 수북이 쌓이는 은행알
주렁주렁 매달려 나오는 고구마
무릎을 흔들며 솟아오르는 김장 무
여름은 들깨, 살찐 당근
반짝이는 대추, 방울토마토
케일, 서리태, 파, 쪽파, 고추
종일 종중거리다
문득 바라본 가을 첫발은
아 보석이네

봄여름 숨찬 노동을 뛰어넘어
나고 자라고 열매 맺어
설레고 벅찬 추수의 기쁨 출렁이는
가을 첫발은
축복이네 행복이네

시인 약력 : 1945년 전주 출생. 경희대 영문학과와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1984년 ‘한국문학’ 신인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경희문학상과 경기편문학대상을 수상했다. 시집 ‘깊고 먼 그 이름’ ‘비로 오는 그 사람’ ‘벌아래 있는 하늘’ ‘홀바람 속으로’ ‘아름다운 독’ ‘위험한 향나무를 버릴 수 없다’ ‘허공에서 싹 트다’ ‘식물 글자로 시를 쓴다’ ‘날마다 되돌아가고 있는 고향은’ 등이 있고 시선집 ‘연기 오르는 마을에서’ ‘햇빛의 몸을 보았다’ ‘그 흔들림 속에 가득한 하늘’ 등이 있다.

독자광장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제언



최근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기동을 받은 뒤 3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운전자의 나이는 96세로, 이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법규 개정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2019년 정부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고, 교통안전교육도 2시간 의무 이수해야 하며, 치매 검사를 받도록 하여 적성 여부를 판단 받도록 하고 있다.

요즘은 전국 자치단체별로 고령 운전자 자진반납 연령을 70세나 65세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는 33,190,565명(2024년 기준)이며, 이중 65세이상 고령자는 3,682,632명으로 약 11.1%를 차

지하지만, 교통사고는 일반인에 비해 14배, 사망자 수는 245배에 이른다.

고령 운전자 사고 발생률이 높은 건 신체적 노화와 관련이 깊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교통안전 연구원의 ‘고위험군 운전자의 주요 사고원인 분석연구’에 따르면 만 65세이상의 운전자는 노화에 의해 가용시각장의 범위가 축소돼 추후방에서 출현하는 장애물에 대한 대처가 어려우며, 정보처리 기능의 약화로 인해 처리정보의 양이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교차로에서 특히 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자동차 인명사고 유형’(2016)의 연구 결과 좌측으로의 차로변경과 중앙선 침범에 따른 정면충돌,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 이후 반대 방향 차와의 정면충돌 등이 자주 일어나는 통계인데 고령 운전자는 운전미숙보다 공간 감각 인지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모든 어르신들이 운전하는데 있어서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건 아니며, 상당수가 영업을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계와 직결될 수 있다.

경찰에서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양보문화 확산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면허증 적성검사, 갱신, 재교부 신청 시 지역경찰 활동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고예방 활동과 병행해 자진반납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령 운전자 대부분이 고령과 무관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이동수단 필요성으로 인해 고령 운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그로 인해 반납의 필요성을 대부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나 읍면동사무소에서 면허증 인센티브 신청서 작성해 자진 반납시 자치단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2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급된다.

일본의 경우 1998년부터 교통비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이용 및 안경, 보청기 등 구입 시 할인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 급증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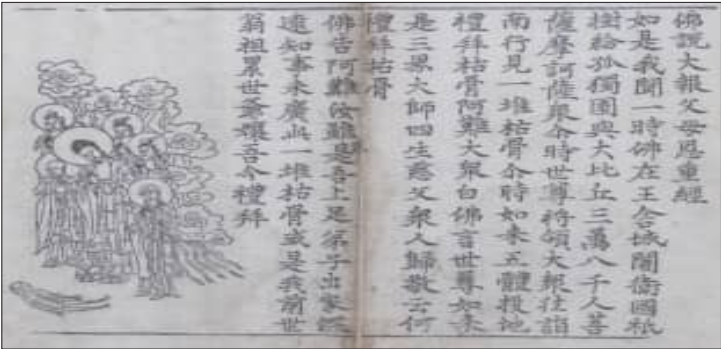
한 대안으로 연령, 특정 질환 등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 2024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들은 야간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 일정속도 이상 운전 등이 금지될 수 있으며, 긴급 제동장치나 차로이탈 방지장치 등 운전 보조 장치를 장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도 있다.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에서는 면허갱신 시 운전에 필요한 인지능력 등 신체 건강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해 의사의 진단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갭신 기간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회와 제도가 어르신들의 운전을 강제로 제한한다면 생계와 인권 등 또다른 문제에 봉착될 수 있어 사회구성원들의 배려와 양보, 여기에 국가의 제도가 적절히 맞물린다면 고령운전자 사고가 앞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이

/전안경찰서 마이파출소장
경감 전근수



대각사 불설대보부모은중경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기록유산, 전적류, 목판본

-지정일 - 2020년 11월 6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678-238

[채준희 나눔농장대표]

토마토에 흐르는 순환의 꿈,
청년농의 지속가능한 여정

◀사전제공 :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홍보팀▶

채준희 나눔농장대표, 군산 청년농이 일구는 친환경 농업의 새 물결

전북 군산시의 한 온실. 1,800평 규모의 토마토 하우스에서 채준희 나눔농장 대표는 아침 일찍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 화면에는 급액량, 배지 수분 함량, 배액 EC 수치가 실시간으로 흐른다. 이제 4년차에 접어든 청년농에게 농사는 숫자로 읽어나는 과학이 되었다.

“첫해엔 정말... 다 없었어요. 바이러스가 돌아서” 채 대표의 말에는 아직도 그때의 막막함이 묻어난다. 8월에 심은 축성재배 토마토 묘가 하나둘 시들어가던 그 겨울, 수확은 커녕 투입한 자본조차 건지지 못한 채 모든 것을 폐기해야 했던 순간이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는 다시 일어섰다.

배움의 물줄기가 희망을 싹 틔우다

농업대학 컨설팅 프로그램과의 만남이 전환점이었다. 주 1회 현장을 방문하는 전문가는 재배 기술만 가르치지 않았다. 작물의 생육 단계별 양분 관리, 환경 제어 시스템 운용, 그리고 무엇보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함께 전했다. “이 시기가 되면 이렇게 관리하자, 이때는 영양생장을 억제하고 생식생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작물을 읽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작물의 부하 상태를 보고 착과량을 조절하고, 일장과 온도를 고려해 생명과 대화하는 기술을 체득하고 있다.

순환식 재배, 버려지던 것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다

1,000평 규모의 연동온실 한 동에 순환식 양액 재배 시스템이 설치된 것은 작년이였다. 배액여과 살균장치를 통해 버려지던 폐양액을 정화하고, 양분을 보정해 다시 작물에 공급하는 기술이다. 화학비료 사용량을 30% 줄이고, 농업용수를 절약하며, 무엇보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농법이다.

“확실히 비료값이 줄더라고요. 원액하고 재활용 양액을 6대 4, 7대 3으로 섞어서 쓰니까 새로 추가하는 비료량이 확 줄었어요”

월 1~2회 염제가 방문해 배액의 EC와 pH, 주요 양분 농도를 분석하고 처방을 내린다. 한 번에 8만 원이 드는 검사 비용도 지원사업을 통해 해결했다.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한 양액 관리가 순환

식 수경재배의 핵심이었다.

자연은 예측이 어렵다.

올해 여름, 기록적인 장맛비가 쏟아졌다. 온실 한 동이 물에 잠겼다. 연동온실 기둥 높이까지 차오른 물은 배지를 적시고, 뿌리를 질식시켰다. 다행히 물이 일찍 빠져 작물은 살았지만, 순환식 시스템은 가동을 멈춰야 했다.

채 대표는 “침수 후에 필터나 배관에 문제가 있을까 봐 아직 못 쓰고 있어요. 점검받고 제대로 다시 시작하려고요”

기후위기는 이제 농업 현장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되었다. 흐린 날이 계속되면 광합성이 떨어지고, 작물은 약해진다. 생육이 부진한 상태에서 기온이 떨어지면 난방비는 치솟는다. 수입은 없는데 지출만 늘어나는 시기였다. 청년농에게는 체력과 자본, 그리고 경영상태를 시험하는 시간이었다.

사람, 가장 어렵고도 소중한 자원

“처음엔 마을 어른들을 모시고 했는데, 허리가 안 좋으니까 오래 못 하시더라고요”

인력 문제는 농업의 영원한 숙제다. 채 대표는 3년 전부터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다행히 다른 농장에서 토마토 재배 경험이 있는 인력을 구할 수 있었다. 한국말로 제법 유창하고, 단순 작업은 물론 세심한 관리까지 함께 해낼 수 있는 동료들이다.

청년농으로서 느끼는 외로움도 있다. 같은 고민을 나눌 또래가 없다. 선배 농업인들의 조언은 귀하지만, 때로는 신기술 도입에 보수적이다. 농업 외 분야 친구들과는 일상의 걸이 다르다. 그래도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지속가능성, 청년이 그리는 농업의 미래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게 목표예요” 채 대표의 말에는 조급함이 없다. 시설 투자 자금을 상환하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고, 그다음에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업인이 아닌 농업 경영인으로, 현장에만 매달리지 않고 전체를 조망하며 관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 GAP 인증과 지역 농



산물 인증을 받아 학교급식에 2~3년간 납품하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는 주말 중심으로 물량을 조절해 출하한다. 욕심내지 않는 대신, 좋은 품질로 꾸준히 신뢰를 쌓는 전략이다.

“포장해서 내고, 안 팔리면 회수하고... 그런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확실히 팔릴 만큼만, 가격도 합리적으로 책정해서 내요”

순환하는 물처럼, 지속되는 삶을 꿈꾸며

토마토의 생육 주기는 명확하다. 개화과 착과, 그리고 과실이 커지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계절이 순환하듯 작물도 순환한다. 그리고 이제 양액도 순환한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선형의 농업에서 자원을 재활용하며 환경과 공존하는 순환형 농업, 본격적으로 데이터 쌓아서 효과를 제대로 증명하고 싶어요”

26세의 나이에 1,800평 온실을 운영하며, 4년간 실패와 성공을 모두 경험한 청년농부. 그의 토마토 재배동에 흐르는 것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믿음, 과학적 농업에 대한 열정, 그리고 더 나은 농업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가 그 물줄기 속에 함께 순환하고 있다.

군산의 한 온실에서 시작된 작은 실험이 만들어갈 내일의 농업을 기대해본다.

/이상훈 기자